

로컬라이프

# 군산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

## 영등1동 부녀회 소라산 환경정화

영등1동새마을부녀회(회장 곽연숙)는 15일 소라산 자연마당을 찾아가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소라산 자연마당은 영등동 일원에 조성되었으며 2013년 환경부 자연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생태휴식공간 '시민쉼터'로 재탄생했다.

영등1동새마을부녀회는 익산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이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전 동 주민센터 2층 교육장에서 생활폐기물발생 억제와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교육을 받아 그 의미를 더했다.

곽연숙 회장은 "익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소라산 자연마당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매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1동새마을부녀회는 해마다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를 위한 정기적인 밑반찬 봉사를 비롯하여 헌 책과 옷 등을 수거하여 기부하는 등 이웃들을 위한 끊임없는 나눔을 펼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 중앙지구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다각적 대책 추진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 경찰서장 서한문 배부하는 등 전화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지구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4대 종교단체인 교회, 사찰, 성당, 교당을 지구대장이 직접 방문, 주요 피해사례와 예방수칙이 담긴 경찰서장 서한문을 직접 배부하고 특히 김용대 지구대장은 "종교단체에서 나서서 주민들이 전화사기에 속아 더 이상 소중한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신도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앞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경로당, 부녀회 등의 관내 곳곳을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식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의 ZERO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익산=장양원기자

## 한용재 익산시장 권한대행 A플러스 아로마 방문 기업으로 청취

한용재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여름철 우수범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플러스 아로마(대표 허진희)를 방문 기업으로 해소에 직접 나섰다.

이번 현장행정은 익산시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기업으로 청취 및 해소 T/F팀" 출범과 함께 이루어졌다.

A플러스 아로마는 자체 제작한 수증기가압추출기를 이용해 편백나무로부터 편백오일과 편백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프랑스 에코서트로부터 5년 연속 천연인증을 받았다.

허진희 대표는 "여름철에는 집중호우 시 공장 내 우수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편백나무 재료를 타 지역에서 구입하다 보니 수급에 애로가 많다. 우수범람 예방을 위한 배수로

익산=장양원기자

## 시, 생태자원 유지·복원 통해 친환경적 생태관광지로

군산 청암산과 군산저수지를 중심으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가 조성된다.

시는 지난 14일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생태전문가와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청암산에코라운드는 인공적인 시설이나 구조물의 설치를 자제하고 현재의 생태자원을 유지·복원하면서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군산저수지는 지난 2008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일반의 출입이 허용된 곳으로 훼손된 부분이 거의 없이

자연 그대로 간직된 곳이다. 또한 저수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청암산은 풍광이 뛰어나며 힐링이 삶의 새로운 화두가 되면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곳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내용은 생태계보전복원사업, 인프라시설 확충사업, 주민소득창출사업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생태계 보전 복원사업은 대나무 식생 생태복원, 가시연 복원사업, 마름군락·원양 서식처 복원, 힐링편백숲·구절초 단지 조성, 조망점 봉우리 식생관리 등을 조성한다.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방문자센터 건립, 어린이 숲체험 놀이공간 조성, 출입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잔디(야생화단지) 조성 등이다.

주민소득 창출사업으로는 특산물 생산마을 산책로 연결, 방문자센터내 휴게시설 운영, 지역민에 한하여 생태계교란어종 수매제도 도입, 중장기적으로 생태수방단지 조성 후 주민협의 회 운영 등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고 이후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기본 및 실시계획을 거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시, 조촌동 제2정수장 계약해지 검토

## 부지 매입업체 180여억원 잔금 납부 이행하지 않아

군산시 조촌동 제2정수장부지를 매입한 업체가 180여억원에 가까운 잔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대금 미납 시 계약해지를 검토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업체는 지난해 8월 공유재산인 제2정수장 부지 31필지(3만6425㎡)를 단독유찰을 통해 190억 1000만원에 군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업체는 매각 잔금 180억 5000여만원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업체는 3차례에 걸친 잔대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잔금 납부를 미뤘다. 지난해 12월말 잔금 1억9000만원을 납부한 상태로, 현재까지 매각잔금 179억 5000만원을 비롯해 미납 연체료만 10억 2900여만원 등 189억 7000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연체금액이 군산시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10억 5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거액의 매각잔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잔대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침체된 동군산 발전 및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각조건 완화 등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잔금 납부가 미뤄지고, 연체료만 누적됨에 따라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납부가 안되면 부득이 계약해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강력 단속

군산내항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해경이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군산 내항에서 금강 하구로 이어지는 바닷길 내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년 이 시기에는 일에서 부화한 뱀장어 유생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실뱀장어로 변하여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하는데, 이를 잡기 위한 무분별한 조업행위가 계속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12일에는 5톤급 실뱀장어 어선과 54톤급 예인선이 충돌하는 등 실뱀장어와 관련한 선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 무허가 어선 조업 및 불법어구 적재 ▲ 불법포획 어획물 소지·유통 ▲ 해상교통안전 저해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

## 익산시, 구제역 유입차단 위해 충남 돼지 반입금지

익산시는 최근 충남 논산시 광역면에서 구제역 양성축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충남 지역 내 돼지 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충남지역 돼지 반입금지는 인근 지자체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반입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충남지역 돼지를 반입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모든 보조 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지역 익산을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과 발생지역의 돼지 입식 지양, 외국인근로자의 이동과 신규요양제, 축산관련인 모임을 자제하는 등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은 물론 철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시는 왕궁지역 돼지밀집사육단지 집단 공무원에 지정해 백신접종, 축사소독, 임상예찰 등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1,000두 이하 소규모 돼지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고 소, 염소, 사슴에 대한 일제접종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팔을 걷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해수청 컨테이너 항로 확대 · 신규개설 추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남광룡)은 지난 14일 군산컨테이너터미널(CCT)에 기항하는 잠금상선(주) 정기 컨테이너선이 광안항까지 확대·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잠금상선(주)은 군산~평택~상해 항로를 주 1회 운항하고 있으나 오는 29일부터는 상해~평택~군산~광안~상해 항로로 확대해 운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군산으로 오는 수입화물 물동량의 증대(평택항에서

T/S)와 군산에서 동남아지역으로 가는 수출화물의 물동량이 증대(광안항에서 T/S)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컨테이너를 통한 군산 수출입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련~연대~군산~광안 항로를 운항하는 동영해운(주)에서는 기존 컨테이너선 2척을 적재능력이 상향된 1천 TEU급으로 교체 투입하고, 세계 최대의 물류항인 상해항과 컨테이너항로 신규개설을 추진중에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시, 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군산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식중독을 예방과 안전한 급식환경 마련을 위해 급식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품위생감시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소스·드레싱류 등의 품목들

대 포장으로 사용하는 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품 적정보관 여부 등이다.

군산=문정근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의 오래된 찌든때와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하고 싶다면
- 믿을 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늬터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 (주) 코포스

##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http://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http://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mailto: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박스]**

박스 용량에 (500~1000ml)를 배수구로 넣고 5분간 방치한 후 물을 넣고 10분간 청소액을 넣어 10분간 청소합니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청소합니다.

※ 청소액은 소독과 살균 효과가 있으며, 박스 사용 전에 박스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어 세척해야 합니다.

**바탕**

싱크대 물이 잘 빠지고 집안에 냄새가 없어집니다.

**취업**

씨서리가 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부업**

주말엔 할아빠 배민사가 되어주고 주말엔 지부장이 됩니다!

**창업**

식중독 사고 예방에 제일 좋습니다!